

## ‘법 앞에 평등’ 그래야 나라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연합뉴스

### ‘피의자 박근혜’ 구속 여부 운명의 아침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2·5면〉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법정 안팎의 긴장감도 팽팽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든, 박 전 대통령 측이든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 한 치 양보 없는 ‘벼랑끝 승부’가 진행됐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번 영장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투톱’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하는 ‘배수진’을 쳤다. 박 전 대통령측도 소환 당시 검찰 조사실에 입회해 변론을 도운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 등으로 방어진을 구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가운데 최대 승부처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

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증거와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에 거액의 출연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대기업들에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지 강요나 압박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워낙 많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라 이날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됐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룬 내용과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 그 결과를 내놓았다. /연합뉴스

### 세월호, 목표신항으로 ‘마지막 항해’

오전 7시 출발... 오후 3시 도착

세월호가 31일 오전 7시 목표신항을 향해 마지막 항해에 나선다. 〈관련기사 3·6면〉 해양수산부는 “반잠수식 선박에 설치된 날개탐 제거와 세월호 선체 고정 작업을 모두 마쳤다”며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은 31일 오전 7시 목표신항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준비작업이 지연되면 출항 시간도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가 인양된 진도 동거차도 사고 해역으로부터 목표신항까지는 약 105km거리다. 시속 18km(10노트)로 이동하면 목

표신항까지 8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7시 출발하면 오후 3시에 도착한다는 의미다. 기상 여건은 좋을 것으로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세월호가 이동하는 31일 진도해역과 목표해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바람 6~11m/s, 파고 0.5~1.5m 잔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의 육상 거처를 위한 마지막 항해길을 소형선박으로 뒤따르기로 했다.

가족들이 반잠수식 선박에 직접 오르지

않고, 해수부의 협조를 받아 인양 작업 및 항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한 채 소형선박으로 8시간여를 뒤따를 계획이다.

정부 합동 현장수습본부는 30일 목표신항에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장수습본부의 세월호가 목표신항에 거치되면 우선 미수습자 수색 준비단계로서 수색인력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선체 세척 및 방역, 선체 안전도 및 작업환경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안철수 TK·강원서도 압승

72.4% 4연승...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

### ㉠ ‘선택 2017’ 대선 D-39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네 번째 순회경선인 대구·경북·강원지역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3·4면〉

안 전 대표는 30일 대구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대구시 3개, 경북 15개, 강원 13개 등 총 31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대구·경북·강원지역 경선에서 유효투표수 1만1296표 가운데 8179표(72.41%)를 얻어 2213표(19.59%)에 그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큰 표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904표(8.0%)를 얻는데 그쳤다. 안 전 대표는 4차 경선까지 누적 득표수 7만5471표(66.25%)를 얻어 압도적인 선두자리를 지켰다. 순전 대표는 누적득표 2만5695표(22.56%), 박 부의장은 누적득표 1만2744표

(11.19%)로 집계됐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경선과 부산·경남 경선에서 연승을 달린 데 이어 이날 4연승을 거둬 7로써 대선후보 선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날 대구·경북·강원지역 경선에는 총1만1277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8일 치러진 부산·울산·경남 지역 총 투표자 수 1만180명보다 1000여명 많은 것이다.

지금까지 4번의 경선 참여자를 모두 합친 총 누적 투표자 수는 11만4000여명을 돌파했다.

국민의당은 30일 대구·경북·강원, 4월1일 경기, 2일 서울·인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에서 투표를 마친 뒤 최종 대선후보를 결정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매일신문=박성전 기자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직행할까

오늘 영남 경선·4월3일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30일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번 주말 사실상 대선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영남지역 순회경선을 하고 31일~4월2일에는 수도권 ARS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월3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끝으로 1차 경선을 마무리한다. 이때 문재인 전 대표가 누적 과반을 득표하면 2차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이 안될 경우 다음달 8월 1, 2위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과반 득표로 1위를 결정지으려는 문 전 대표와 결선투표 뒤집기를 노리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후반전 승부가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대세론’을 굳건히 이어가면서 호남·충청 2연승을 달성한 문 전 대표가 무난하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문 전 대표는 다음 순회경선지가 ‘정치

적 고향’ 영남권인 만큼 이 곳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사실상 1차 과반 득표를 결정짓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안 지사 측과 이 시장 측에서는 문 전 대표 과반 저지를 공동의 목표로 철박하게 뒀고 있어, 결선투표 여부는 60%가량의 선거인단이 몰려있는 마지막 수도권 경선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총선거인단 수는 214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영남 21만, 수도권·강원·제주 선거인단 수는 130만여 명으로 아직 150만 명가량의 선거인단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안 지사와 이 시장 측에서는 “문 전 대표가 영남에서 55%를 얻지 못한다면, 수도권에서 45% 이상 득표만 저지해도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갑다, 프로야구 개막

오늘 대구서 KIA - 삼성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제는 **평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